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 교육방안

- 토론담화표지를 활용하여

박 애 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초록

본문은 중국어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 교육 방안을 찾기 위한 논문이다. 본문은 말하기 능력 제고를 위해 토론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에 주목하고 학습자가 토론에서 주로 나타나는 담화표지를 이용하여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토론의 실제자료와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토론문형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토론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담화표지와 표현문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회자 발화는 비교적 전형성이 강해 문장 단위의 담화표지가 많았다. 그에 비해 토론자 발화는 사회자 발화에 비해 발화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문장의 종결어미는 토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문형으로 44개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토론화행의 표현문형에도 요청과 제안 등 여러 가지 표현문형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장에서 학습자들의 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본문과 같은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토론, 말하기 능력, 토론문형, 담화표지, 표현문형

1. 들어가는 말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의 반응을 전달받으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말하기는 의사소통중심의 교육에서 강조되어 왔던 기능으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도 ‘말하기’는 1차적인 학습목표로 중시되고 있다.

최근 고급한국어 학습자들의 증가와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증가에 따라 초·중급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고급 ‘말하기’ 교수요목에 대한 연구가 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주장이 자신과 다를 때 반박하거나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 능력은 토론 교수·학습을 통해 제고될 수 있는데 본문은 이러한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중국인들은 대화에서 우선 자신들의 논리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진술하며 자신의 결론의 적법성을 상대가 인식할 때까지 점차 공유 지식을 넓혀간다.¹⁾ 이러한 중국인들의 말하기 습관은 토론 화행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토론을 통한 말하기 훈련은 중국어 화자에게 매우 익숙하고 접근이 쉬운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의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 특별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1) Nancy Bonvillain (2002:491)

1.1 선행연구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토론학습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는데 고급 학습자들의 증가와 학문적 한국어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토론에 대한 교수·학습의 요구가 점차 늘어나 자연스럽게 한국어 교육에서도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교육 문제가 제기되었다.²⁾

안경화(2001)는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토론 표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토론교육에 필요한 토론 텍스트 특성인 응결장치³⁾와 담화표지 등을 논의하였다. 이동은(2003)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토론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즉, 논리연습, 토론과정, 토론 후 쓰기연습이라는 3단계 토론 수업 방안이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의 연계수업 형태이며, 1단계 논리연습 과정은 학습자들의 논리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호(2005)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 기술 향상 방안으로 토론 수업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특징은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재영 외(2005)는 토론을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몇 가지 교실활동에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토론활동은 그룹 활동으로 진행되며 해석하기와 문제 해결하기의 세부 활동을 통해 조원끼리 서로 토론하고 이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하였다. 이미혜(2006)는 한국어 교육에서 토론을 ‘말하기 능력 향상의 효율적인 활동’이라고 규정⁴⁾하고 과정중심의 토론 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 수업

2) 국어부분에서 토론연구는 박용익(1997,2004), 송경숙(1993, 1996, 1997, 2002), 전은주(1999, 2000, 2003), 김미자(2002), 전영옥·구현정(2003), 민병곤(1000a, 20001b, 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3) 안경화(2001:138)는 응결성은 텍스트의 논리성을 보장하고자 표면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문법 등의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논리적 응결장치에 대해 Halliday(1985)의 의미 기능을 받아들여 응결장치를 크게 “설명, 확대, 강화”로 나누고 이를 또 서정수(1994) 등의 연구를 참고로 “나열, 대조, 배경, 선택, 원인·이유, 결과, 목적, 조건, 양보, 순차, 동시, 비례, 비교” 등으로 세분했다.

4) 이미혜(2006:308)는 한국어 교육에서 토론 수업을 협의의 토론, 토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져 논의하는 것(연세한국어사전)이고,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의논하는 것(연세한국어사전)으로, 토론은 정식으로 자신과 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토론 주제, 토론 전략 및 표현 등 토론 수업 과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다루었다. 이상의 논문들은 모두 토론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교실토론 수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권별 토론학습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었는데 현재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등 다양한 국가출신 학습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학습자 문화에 따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는 자국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위해 교실토론을 강조하고 있다.⁵⁾ 학교수업에서 토론과목을 설정하고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서 ‘語文시간’에(우리나라 국어시간에 해당한다.)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⁶⁾ 또 이와 비슷하게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표현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토론에 대한 수업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다양한 주제선정, 둘째, 전반 학생들의 참여 유도, 셋째, 교사의 전체 평가와 마무리⁷⁾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토론 중시현상은 중국의 한국어 교수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묘춘매(2001:97), 김순녀(2006:207) 등은 각각 주제 담화법, 화제 교수법으로 토론교육 주제선정 등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고, 김충실(2001:117)은 말하기 교육을 대화단계, 독백단계, 회화단계, 토론 종합형식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아직까지 말하기 능력의 제고를 위한 주제선정과 교수·학습자의 마음가짐 등 제언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며 토론 문형을 이용한 구체적인 토론교실수업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문은 토론문화에 익숙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서 실제 토론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사용될 수 있는 교수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고자 한다.

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나아가 상대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명백히 하는 담화의 한 형태로 토의와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진 의사소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토의와 토론을 함께 묶을 수 있고, 교실학습에서 비슷한 활동으로 함께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따로 구분하지는 않겠다.

- 5) 林樂芬(2000:59), ‘課堂討論與學生學習主動性的發揮’, “高等農業教育”第3期.
- 6) 杜振宇(2008:35), ‘討論課在語文教學中的作用’, “文學教法”. 이 논문의 저자는 매주 1회 2시간씩 토론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 7) 崔永華·楊寄洲(2002:154-155), “漢語課堂教學技巧”, 北京:北京語言大學出版社.

1.2 연구방법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 제고의 한 방법으로 토론 담화표지를 이용한 한국어 토론 말하기 연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담화표지와 토론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토론과 관련된 담화표지를 정리하고 말하기 학습에 활용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본문은 현재까지 진행된 토론 관련 연구를 근거로 실제적인 토론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제고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제 100분토론 자료 4회분⁸⁾을 주 분석 자료로 삼고 현재 한국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강대, 이대, 경희대 등 3개 대학 한국어 고급 교재와 한국어 말하기 교재 1권을 토론발화 분석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TV 100분 토론>으로 잡은 이유는 토론 참석자들은 일정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공식적이면서 구두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토론의 특성이 생방송 TV토론 중에 잘 나타난다는 송경숙(2002:250)에 논점에 근거하여 TV 100분 토론 자료를 분석 대상과 범위로 삼았다. 또 자료에는 <저 출산, 무엇 때문인가?>와 같은 공동으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도 포함한다.⁹⁾ 박용한은 Drew & Heritage(1992)에서 제시된 제도적 특징에 따라 TV 생방송 토론 대화도 제도 대화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했는데(박용한 2003:32~34), 이러한 유형은 사회자와 토론자의 역할이 분명하다. 따라서 2장에서 이루어질 분석방법은 토론자료 4회분에서 각 발화자의 발화를 문장단위로 나누고 사회자와 토론자의 발화양상을 따로 살펴볼 것이다. 또 토론자의 종결어미의 취사선택을 살펴보고 토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문형을 뽑아내어 빈도수에 따라 배열한다. 2장에서는 분류된 토론 담화표지와 표현문형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이를 이용한 토론언어 연습방안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8) 100분토론 자료- ①독도이야기(2000.10.6); ②새만금 간척사업, 계속돼야 하나?(2000.11.16); ③사형제도 폐지 필요한가? (2004.7.22); ④저 출산 무엇 때문인가?(2007.10.20)

9) 토론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전사가 잘못된 곳을 수정하기 위해 맞춤법 수정작업을 한차례 실행했다.

2. 100분 토론에 나타난 토론 담화표지

전영옥(2002)¹⁰⁾에 따르면 담화표지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기존의 의미·기능을 획득하게 된 표현이 언어사용 또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존재 이유를 갖고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임규홍(2007)의 정리에 따르면 담화표지 연구는 담화상황에서 실현되는 독특한 표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현배의 ‘의지감탄사’로부터 김종택의 ‘군말’, 남기심·고영근의 ‘머뭇거림 입버릇’, 노대규의 ‘머뭇말, 덧말’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던 것이 신현숙(1989)부터 담화표지로 연구되어 현재는 대응어, 이음말과 같은 결속 장치류의 연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구지민(2005)은 강의 담화표지를 연구하면서 담화표지를 한두 어절의 미시표지가 아닌 말단위로서의 구를 형성하고 있는 거시표지로 담화표지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강의 듣기에 거시담화표지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생각에서였다.¹¹⁾ 본문도 토론 담화표지의 범위를 문장단위까지 크게 보려고 한다.

2.1 사회자 담화 표지

토론을 진행할 때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
- 10) 담화표지는 다양한 언어 형식으로 실현된다. 부사: 그래,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근까), 그런데(근데), 그럼, 그렇지만, 그리고, + 그 다음에(그 다음에), +이케, +저케, ‘정말’류, 아무튼, 어쨌든, 여하튼, 왜, 이제(인제, 인자, 인저), 좀, 막, 좌우간, 참, 하여간, 어디, 가만 등. 감탄사: 자, 뭐 +뭘, 저, 아니, 글썽, 네, 예, 예, 예또, 어, 음, 응, 아아빨사, 아이가, 아이고!, 아이구!, 어머, 오!, 야, 애, 이봐 등. 대명사: 거시기, 저기(요), 이거, +그거, +저거 등. 용언: 뭐지, 뭐야, 뭐냐면, 뭐랄까 있잖아, 있잖아(요), 있지, 있지요, 말씀이야, 말이야, 말이에요. 말이지, 말입니다. 말하자면 등. 관형사: 이, 그 +저, +이런, +그런, +어떤, +무슨 등. 조사: -요, -그래, -만은 등. 구절: +이런 거, +그런 거, + 저런 거, 그 뭐야(거 뭐더라, 거 뭐시냐), 아니 근데, 응 근데, 그건 그렇고, -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글썽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다르게 아니구요 등.
- 11) 구지민은 Jordan(1997:184~185) 영어에서의 미시 담화표지(Well, All right, Of course 등)와 거시 담화표지(In this way,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something 등)를 예로 들고 강의에서는 거시 담화표지가 학습자들에게 더 어렵기 때문에 강의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긴 문장까지 거시 담화표지로 규정하고 연구하였다.

토론 담화표지들을 나눌 수 있는데 강현화(2007)의 분류에 따르면 토론은 화행¹²⁾기능 가운데 ‘의견 교환’에 속하는 기능으로 의견 듣기, 의사표시, 동의, 반대, 토론 등이 그 하위기능 속한다고 하였다. 본문은 토론의 담화표지 연구에서 찬반 양측 토론자와 토론을 이끌어 가는 사회자의 발화차이도 함께 보기 위해 토론기능을 크게 사회자발화에 속하는 “진행하기”와 토론자 발화에 속하는 “토론하기”로 나누고 “진행하기”에 ‘시작하기, 질문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정리하기’를 포함하였고, “토론하기”에는 ‘주장하기, 반대하기, 동의하기, 질문하기 요청하기, 대답하기, 설명하기, 부연하기를 포함시켰다. 100분토론 4회를 분석한 결과 <표1>을 얻을 수 있었다.¹³⁾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작하기: 지금부터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통 때 토론보다 가능하면 더 많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질문하기: ~께서 ~다는 논리를 제시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께서도 거기엔 동의하시는지요? ~이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 제안하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요? ~것 보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대안을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 요청하기: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를 좀 밝혀 주시죠. ~께서 잠깐 짧게 보충말씀.
- 정리하기: 이 대목에서 잠깐 한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반양론이 크게 엇갈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잠깐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마무리: 오늘 ~토론 이 정도에서 논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요. ~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 화행(speech act)이란 말을 통해서 사람이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실을 일컫는다.(강현화 2007:7)

13) 표에서 나타난 표현문형들 가운데 비슷한 표현은 그중 하나만 취했다. 사회자 담화표지 분석 <표1>과 토론자 담화표지 분석<표2>는 첨부로 붙임.

사회자 발화는 매 토론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가 비교적 전형적이고 완전한 문장이다. 사회자의 이러한 발화유형은 토론의 담화표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볼 토론자 발화는 전형성이 비교적 적는데 이는 토론자의 개인적인 발화성향과 토론의 주제에 따라 발화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론자의 발화유형을 등급화한 결과 사회자 발언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2.2 토론자 담화표지

토론자 담화표지는 사회자 담화표지보다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 주장하기: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을 주장합니다.
- 질문하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는 (관리)할 수 있으면서 ~는 (관리)하지 못합니까?
- 반대하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엔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 동의하기: 옳은 말씀입니다.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물론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 설명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고 하는 주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요청하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 대답하기: 제가 잠깐 대답을 할게요.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 부연하기: ~고요, ~데요, ~거든요

이상의 토론자 발화를 살펴보면 종결어미로 끝나는 토론자 발화 2,141개 문장 분석한 결과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고빈도¹⁴⁾ 토론종결어미 8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들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습니다’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니까’, ‘~고요’ 등의 순이었는데 정식토론이라는 특성상 합쇼체의 높임어가 사용되었지만 토론이 일정시간 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어적 표현이 가미되어 토론진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니다’의 종결어미가 많이 사용된 이유는 토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을 설명하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니까’나 ‘~죠’, ‘~거든요’ 등 사실의 재확인이나, 동의 표시, 정중한 질문, 그리고 까닭이나 이유를 밝히는 종결어미들이 토론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이들의 활용 빈도를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순위	종결어미	수량	순위	종결어미	수량
1	-습니다	1679개	5	-거든요	126개
2	-니까	588개	6	-ㄴ/르 겁니다	99개
3	-고요(구요)	153개(36)	7	-아요/어요	86개
4	-죠	148개	8	-ㄴ 데요	58개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토론에서 사회자 발화와 토론자 발화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발화는 대부분 질문과 정리를 위한 문형을 사용하고, 토론자는 설명과 주장을 위한 문형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3>에서 나타난 종결어미들은 이미 학습자들의 선행학습을 통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문법 항목들이지만 이들이 토론 담화상황에서 다른 결속기제들과 함께 사용되어 토론 담화표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론 말하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결어미를 접속사, 대응어, 지시사 등과 연결해서 학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러한 부분은 3장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다.

14) 100분 토론 4회분에서 50회 이상 나타나는 것을 고빈도로 잡았다.

2.3 사회적 변인 분석

분석 자료로 사용된 TV 100분 토론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 프로그램이다.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구어적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질문을 통해 발언권을 받으면 시간차 없이 발화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 말미에 부연이나 보충발화가 자주 발견되었다¹⁵⁾. 또 사회자가 토론을 주도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사회자 발화도 토론의 주제와 연관된 발화가 많았으며 토론자의 발언권을 뺏어오는 끼어들기나 토론자의 발화에 응답하는 맞장구 형태의 발화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토론자의 성별, 나이, 지위 등 사회적 변인으로 인한 발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¹⁶⁾ 또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연구된 한국어 헤지¹⁷⁾ ‘같아요’와 같은 문미표현도 성별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¹⁸⁾ 그러나 일반적인 토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인으로 인한 발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송경숙(1993:송경숙(2002)에서 재인용)은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 소그룹 형태의 토론을 연구했는데 이때는 사회적인 변인으로 인해 남녀의 토론 발화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인 변인이 토론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4 표현문형 분석

-
- 15) “대개 임신 10개월 동안 남편이 부인하고 함께하는 동화도 읽어주고 CD도 듣고 굉장히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요.” (저 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내용 중에서)
- 16) 사회적 변인이 작용한 부분은 분석자료 4회분가운데 한 차례로 대학생인 방청객의 질문에 대학교수인 토론자가 대답할 때 “아시겠습니까? 판결문 읽어봤어요? 그 공부를 할 때는 판결문을 보세요. 그러고서 그 판결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라고 다소 훈계적인 발화를 한 것이 있다. Steger(1974)의 분류에 따르면 공개토론은 여러 화자가 미리 결정된 주제를 논증적인 방법으로 토론하는 것인데 이때 이들의 지위는 평등하다고 하였다.(이원표 역1997:149 재인용)
- 17) ‘헤지’는 화자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거나 진술문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Lakoff1975:53)로 한국어의 헤지로는 “좀, 조금, 그리고, 조그마한, 만약...면 등이 있다. (송경숙 2002 184~185)
- 18) ‘같은데요’라는 표현은 손석희(남)5회, 이유명호(여)1회; ‘좀’이라는 표현은 손석희(남)7회, 차영(여)8회로 ‘같은데요’와 같은 헤지는 이번조사에서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화(2007:6)에 따르면 표현문형은 어휘구의 하위 유형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상용적 구 혹은 상용적 문장의 형태와 관습적 어휘 패턴으로 나누는 것 가운데 후자를 지칭하며 이는 또 연결형 표현문형과 종결형 표현문형으로 나눈다. 전자는 주로 이유, 조건, 양보, 대조, 나열 등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나타내고 후자는 전형적으로 기능적 언어사용과 연관되는 화행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토론의 종결형 표현문형은 2.2에서 분석한 종결어미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은데 토론의 표현문형을 찾아내고 화행 각각의 기능별로 분석 구분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할 경우 학습의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4>

번호	표현문형	예문	유형
1	~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①19)	반문
2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 생활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새만금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②	반문
3	~지 않은가요?	갯벌을 매워서 농토를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요?②	반문
4	~다고 (~)하셨죠?	금강에 있는 물 끌어오신다고 계획하셨죠?②	반문
5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굶어서 부스럼 만드는 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①	반문
6	~에는 동의/반대 하시는군요?	어려움에는 동의하시는군요?④	확인 질문
7	~에 동의/반대 하시는지요?	박 변호사께서도 거기엔 동의하시는지요?③	확인 질문
8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보존하는 이런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②	주장
9	~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④	주장
10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친 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②	주장
11	~해야야 (만) 됩니다.	거기에 견줄만한 대응을 해야 만 됩니다.①	주장

12	~(여/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경지 시비량을 30% 줄여야 합니다.②	주장
13	~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응보형의 대가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③	주장
14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농업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②	주장
15	~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여성경제 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후진국 밖에 없습니다.④	주장
16	~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④	주장
17	~(으)ㄴ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익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그걸 타할 필요가 없습니다.①	주장
18	~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책이 이행돼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①	주장
19	~를/을 반대/찬성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상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③	주장
20	~까 싶습니다.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④	주장
21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④	주장
22	~(으)면 됩니다.	똑바로 돼 있는 강이면 그건 전부 옛날 갯벌을 매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②	주장
23	~도/면 안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③	주장
24	~는 (부정)겁니다	이건 형벌의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③ / 피해자의 입장에 서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③	주장
25	~느냐 이겁니다.	왜 한국의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①	주장
26	~ㄴ 가능성이 큼니다.	운영은 결국 무기 정역으로 갈 가능성이 큼니다.③	주장
27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전망을 합니다.④	견해
28	~고/지/가/로 (있다/없다)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①	견해

29	~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오심이 아니고 각각 판사들은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③	견해
30	~해야 될(는) 겁니다.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②	견해
31	~은/는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리는 제한하라는 겁니다.③	견해
32	~이라는 것이고요.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이고요.④	진술
33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절감이 결국은 저출산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④	진술
34	~게 됩니다.	출산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④	진술
35	~다고 했습니다.	갯벌이 없어 졌다고 했습니다.②	진술
36	~다는(게) ~은/는/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사업비가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②	진술
37	~는/르/ㄴ 것(과) 같습니다.	현지 주민들 말씀이 전문가들 말씀 못지않게 아주 내용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②	진술
38	~V 는데요.	예, 지금 식량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②	확인
39	~ㄴ다는 ~이신데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신데요.①	확인
40	~는 말씀/얘기(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단 요청하는 쪽에서는 큰 재앙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②	확인
41	~아/어 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②	요청
42	V아/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②	제시
43	~(으)르것 같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④	추측
44	~보자 이겁니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③	제안

위의 <표4>는 토론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문형으로 이번 분석에서는 모두 44개의 표현문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것을 다시 기능별로 유형을 나누어 보면 주장, 확인, 반문, 진술, 추측, 제안, 요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토론의 기능별

19) 번호는 주석 8 참고.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주장(19)과 질문(7), 견해(5) 등인데, 토론의 특성상 반대나 동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었고 상대를 설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진술기능과 함께 요청이나 추측, 제시, 제안 등 다른 화행기능도 나타났다. 이는 토론화행에서도 요청이나 제안, 반박 등의 화행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는 한국어의 표현문형이 여러 담화상황에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학습활동으로 연계해서 살펴볼 것인데 학습활동의 주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다.

3. 토론 담화 표지를 이용한 말하기 연습 활동

최복자(2006:22)에서는 국어학습을 위한 토론학습 목표로 “토론 지식을 알고 수행함으로써, 토론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토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를 설정했다. 고급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기준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과 관련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강승혜 2006b)이다. 물론 토론능력은 말하기 등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배경지식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의 완성도는 각 학습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특정지역 언어권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토론을 위한 말하기 연습이 교재의 교수항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에서 토론을 위한 말하기 연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이화여대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에서는 토론을 위한 언어훈련을 집중적으로 개발 교수하고 있었다. 본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토론부분에 대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의 목표를 만족시키고 말하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의 2장의 결과를 이용하여 몇 가지 수업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토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에 대한 선행학습이다. 말하기의 기본은 적절한 어휘의 사용이다. 토론어휘와 토론 주제어휘, 또 그와 관련된 속담이나 성어 등에 관한 선행학습이 토론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둘째는 발화의 응결성

높이거이다. 토론할 때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발화가 길어지게 된다. 이때 발화의 응결성을 높이고 선후발화의 논리적인 연결을 이루기 위해 응결장치인 연결어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발화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 역시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표현문형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결어와 표현문형의 연계학습이 필요하다. 셋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연습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영역과 관련 있는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는 어렵다. 토론의 훈련을 초급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토론을 능숙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능력은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상시 학습자들에게 언어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에 그러한 장치를 구성해 놓는 것이 좋다. 또 토론의 주제에 대해 미리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와 배경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것도 원활한 토론을 위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연습용 텍스트는 토론 문형 분석에 사용되었던 <100분 토론:저 출산, 무엇 때문인가?>에서 가져왔다.

3.1 토론 어휘를 이용한 연습

토론은 언어지식을 포함한 많은 배경지식을 전제로 하게 된다. 한국어 학습자 대부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토론의 사고형성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지만 성공적인 토론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몇 가지 학습준비를 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토론활동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어휘장을 준비한다. 토론 수업 전에 각 토론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을 뽑아 정리해 놓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한국어 교육용 어휘 5,965에서 그 가운데 토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따로 뽑아서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표현문형에 어휘를 교체해서 말을 만드는 연습이나 사자성어와 속담인용은 매우 좋은 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성어와 전고의 사용에 익숙한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성어와 속담의 학습 및 사용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자어 활동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토론의 주제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지지만 정
식토론의 경우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자어 사용빈도가
높게 된다. 중국어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단어들을 정리해서 제시한
다면 학생들의 어휘습득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어휘를 이용한 연습

하나의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를 교체하는 연습이다. 이 연습은 단순하게
단어의 의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문장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 의미를 흐
트러트리지 않는 단어 선택의 능력도 기를 수 있다.

- 1) 텍스트의 ()부분을 비어있는 채로 놓아두고 전체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본
보기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도록 연습한다.
- 2) 전체 텍스트를 모두 보여주고 중요한 단어들에 표시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도록 한다.
- 3) 텍스트의 원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비슷한 다른 단어들로 변환해 보는 연습
을 한다.
- 4) 제시한 단어들을 한자어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한다.

[문제 예문]

<p>일단 ()가 줄어들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마이너스 의미가 더 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 문제 또 우리 (), 또 ()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는 저 출산 문제하고 지금 ()하고 같이 ()해서 나타나면서 말하자면 ()해야 되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받아야 되는 인구가 늘어나 면서 전체적으로 ()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경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들도 같이 ()하는 굉장히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p>
--

단어 보기: 인구, 경제규모, 경제력, 성장잠재력, 출산문제, 고령화 문제, 병행,
부양, 사회비용, 사회적인 문제, 야기, 심각한 국면

☞ **변환된 텍스트 예문:** 일단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문제 또 우리 경제력, 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문제는 저출산 문제하고 지금 고령화 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면서 부양해야 되는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 받아야 되는 인구는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비용도 너무나 커지고 그러면서 경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같이 초래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2) 표현문형을 이용한 연습

토론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문형을 이용하여 해당 표현문형과 잘 어울려 사용하는 어휘들을 연결해 보는 연습을 한다.

- 1) 중국어의 경우 조사와 어미의 역할을 하는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결어미와 표현문형을 함께 제시하여 덩어리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2) 중국어에서도 단어 간 배합(搭配)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함께 잘 어울려서 쓰이는 형태를 함께 제시하여 사용상의 오류를 줄이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 ~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라고/정책이라고/마찬가지라고/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 ~다고 봅니다.→ 된다고/없다고/낮다고/끝났다고/희박하다고/필요하다고/가능하다고 봅니다.
- ㉢ ~을/를 (좀) 드릴게요.→ 말씀/소개/답변/실증적인 예/얘기를 (좀) 드릴게요.
- ㉣ ~아/어야 됩니다.→ 봐야/가야/해야/줄여야/늘려야/잡아야/만들어야/이해시켜야 됩니다.
- ㉤ ~르것 아닙니까?→ 보낼/갔을/보았을/돌아갈/만들/개정할/고칠 것 아닙니까?
- ㉥ ~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인/정책적인/개인적인/환경적인/교육적인/사회적인 문제입니다.

㉞ ~고 싶습니다.→ 가고/먹고/자고/떠나고/주고/공부하고/말하고/운전하고 싶습니다.

(3) 토론주제를 이용한 언어 관계 연습

토론주제는 당시 사회의 중심 화제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때 주제로 선정될 만한 문제들을 요목 정리하여 토론 수업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토론의 주제는 대부분 언어적 표현이 많은데 자주 함께 쓰이는 연어들에 대한 연습으로 매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 1) 토론수업을 하기 전 주제를 시간별로 정해서 미리 주제를 토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목록을 작성한다. 현재 시중 교재에는 따로 토론을 위한 어휘들이 선정되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²⁰⁾
- 2) 교실 토론의 주제를 선정할 때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민족이나 종교가 다를 경우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국가 간에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제 예시>

가상공간에 대한 윤리 문제/ 동성 연애/ 사형 제도의 존폐문제/ 성의 상품화/ 안락사 인정 여부/ 유흥업소 영업 시간 자율화에 대한 찬반/ 장례문화 매장이나 화장이나/ 차량 10부제 실시 문제/체벌문제/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 초등학교의 한자 교육문제/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문제/ 텔레비전 광고의 필요성/ 한국 영화 쿼터제 문제/ 혼전 순결문제/ 대도시 교통난 해결책/ 무너지는 교권 살리기 방안/ 통신 언어의 순화 방안/ 환경오염 방지책/ 청소년들의 연예인에 대한 집착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²¹⁾

(4) 관용적인 표현 연습

20) 본문은 시험적으로 토론 자료 <저 출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해당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와 표현들을 정리해 보았다. 자료의 특성상 중국인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성어와 전고가 많이 수합되지는 않았지만 관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관계의 학습과 주제별 어휘연습에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4 참고.

21) 문금현 (2000:133~134)

토론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을 연습하는 것도 토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들은 중국어 토론 표현들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내 생각에(我認爲)”,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은…(我對這個問題的看法是…)”,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我覺得…)”, “저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합니다(我同意這種看法)” “저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합니다(我不同意這種看法)” 등 토론화행에서 잘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들을 토론 학습 전에 미리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3.2 문장 연결어와 종결어미를 연계한 연습

토론에서의 발화는 대체로 길게 이어지는데,²²⁾ 이는 자신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발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화자는 여러 가지 응결장치를 사용해서 자신의 발화를 유지하는데 안경화(2003:15)에 따르면 하나의 토론텍스트에서 논리적 응결장치인 연결어를 사용횟수는 3,640회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중 실제로 50회 이상 자주 사용하는 연결어는 14개 정도가 되는데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고, -면, -는데, -어서, -니까, -지만, -면서, -라, 그런데/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르때²³⁾

학습자들에게 말하기 연습을 시킬 때 문장을 쉬운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긴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이때 연결어를 이용하여 단문을 복문으로 만들고 앞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 사용에도 주의를

22) 본문을 분석한 결과 짧게는 ‘네’와 같은 간단한 대답에서 길게는 최고 22개나 되는 문장을 한 번의 발화기회에 연이어서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23) 토론에 모든 문장연결어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안경화(2000:14~15)의 연구에서처럼 문장연결사 “그랬더니”는 본문에서 조사한 토론 자료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랬더니’의 의미가 앞 문장에서 과거에 화자가 자신이 행동하거나 말한 것을 회상하여 보고하고 뒷 문장에서 앞 문장의 동작으로 생긴 결과나 또는 앞 문장 뒤에 생긴 단순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백봉자2006:111)이기 때문에 토론의 상황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기울일 수 있도록 처음에는 교사가 다리역할을 하여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그랬더니’ 등의 연결어를 학습자의 발화 끝에 붙여 질문해주면 학습자는 교사의 연결어 발화를 모방하여 제2, 제3의 발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결어와 표현문형을 함께 연계해서 학습하는 것도 논리적인 긴 발화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어의 토론 학습에서도 “因爲…所以…(왜냐하면…그래서…), 雖然…但是…(비록…하지만…), 無論… 都…(…에 관계없이…), 即使…也…(설령…지라도 역시…)” 등 앞뒤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의 연습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연결어와 표현문형을 연계한 학습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1) 모방문형 연습

1) 연결어와 문형표현을 쌍으로 사용하는 연습.24)

연결어와 표현문형을 쌍으로 묶어 놓은 틀에 단어 바꾸기 연습을 한다.

[문제 예문]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세요.

보기: (출산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여성경제 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후진 국)밖에 없습니다.

예1) →출석률이 굉장히 낮으면서 점수가 높은 학생은 그 학생 밖에 없습니다.

예2) →배기량이 매우 높으면서 연비가 낮은 것은 이 차종 밖에 없습니다.

2) 연결어와 함께 쓰이는 표현문형 연습

하나의 연결어와 다양한 표현문형을 함께 연습한다.

[문제예문] 다음 ()부분을 보기처럼 다른 말로 바꾸어 보세요.

보기: 그래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1) 그래서 ()게 되다.→

24) 아직까지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필연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시된 연결어와 표현문형의 상관성은 적다. 그러나 긴 문장을 연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몇 개의 예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2) 그래서 () 필요가 없다. →

(2) 연결어미를 여러 개 겹쳐 사용하는 연습
제시한 문장을 이용하여 새롭게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다.

[문1] 아래의 문장을 예문처럼 만들어 보세요.

예1) 가정에서 도와줘야 되고 기업에서 도와줘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출산과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야 되고()야 되고 ()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2) 제가 20대였을 때는 20대 산모를 봤고 제가 산부인과 의사 된 다음에 30살 때는 30살 산모 보다가 최근에는 40대 산모까지 보는 거예요.

☞ () -고 () -다가 ()까지)-는 거예요.

(3)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표현 하는 문형연습

1)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강조할 경우

☞ **제 생각엔** 지금 그나마 참여정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한 진전을 이뤘다고 봅니다.

2) 자문자답의 경우

☞ 정부나 기업에서는 몇 개 지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6시에 퇴근을 못하는 여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6시 이후에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3.3 표지를 이용한 연습²⁵⁾

외국어로 말을 길게 할 때 자칫하면 말이 흩어지고 비논리적이 될 수 있다.

25) 토론 담화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략이 쉽고 자주 쓰이는 ‘라는’과 ‘요’를 예로 들어 보겠다.

특히 토론에서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담화 표지를 이용하게 되면 발언이 좀 더 명확해진다.

(1) ‘-라는’을 이용한 연습

구어에서는 간접 인용문을 사용할 때 간접 인용문임을 나타내는 인용표지인 ‘라는’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발화시 약간의 휴지를 두게 되면 그 말이 인용된 문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언어외적 표지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도 이러한 담화표지를 생략하거나 넣는 연습을 통해 긴 문장 발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이러한 담화표지는 “你的意思是…(…라는 의미신데요)”처럼 대부분 앞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표지어의 위치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자주 노출시켜 학습자가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게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예1) 독도는 우리 땅으로 어쨌든 계속 갈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 독도는 우리 땅으로 어쨌든 계속 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2)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커야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커야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2) ‘-요’를 사용한 연습

토론에서 ‘-요’는 문미에서 종결의 의미로 사용되기 보다는 앞 발화 끝에 사용하여 휴지를 나타내고 다음발화를 연결하는 담화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 데요, -거든요, -예요’ 등이다.²⁶⁾ 토론에서 긴 발화를 할 때 ‘-요’의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면 긴 발화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 최규일(2003)은 담화시 문중 ‘요’의 기능을 ① 호흡과 생각 정리 조절 기능: 발화/담화 중간에 호흡 조절과 생각을 조절하는 기능; 발화를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어나가는 조절 기능 ② 청자 반응 유도 기능: 청자의 주의를 끌어 반응을 유도하는 기능 ③ 강조 기능 ④ 청자 존대 기능이라고 하였다.

예1) 사실 오늘 그 문제를 논의 안 하고 있는데요. 저 출산의 굉장히 큰 문제로 사교육비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 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얘기해서 해도 참 모자란 아주 심각한 문제 입에 틀림없습니다.

예2) 스웨덴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1세 때부터 5세 때까지 오전 7시 반에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고 교육과 보호를 같이 해준 거예요. 믿고 맡기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한 2만 8천개의 민간보육시설이 있고요. 99만 명이 혜택을 받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 시설도 지금 현재 11%에서 한 30% 올리면 이 기업친화 적인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3)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연습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때 몇 가지 논지를 들어 설명한 다면 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을 순서에 따라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등 몇 가지로 나누어 말 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말이 일관성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중국어에서도 자신의 말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首先…其次…最后… 먼저…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나 간단하게 “第一…第二… 첫째…, 둘째…” 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순차적인 표현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쉽게 학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 첫째, …둘째, …셋째, …

(경희대학교 『한국어』고급Ⅱ 124쪽)

이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담화표지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어에도 꼭 일대일 대응관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담화표지가 많이 있다.

예)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다음에, 바꾸어 말해서, 그것과 별도로,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무엇보다 먼저, 끝으로, 요컨대, 결국,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4) 종류에 따라 설명하는 연습

- ☞ -에는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_____, _____, _____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 ☞ -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고, 다른 하나는 -입니다.
(경희대학교 『한국어』고급Ⅱ 124쪽)

3.4 전략에 따른 연습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강도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토론이 될 것이다. 설문지를 통해 반대 의사 표현의 강도를 조사하였는데, 반대 의사 표시가 강할 때를 5로 하고 점차 강도가 약함에 따라 강도 1까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5>는 반대의사표시의 강도 조사 결과이다.

<표5>의 막대는 본문의 토론 자료에서 반대표현으로 조사된 담화 표지 29개 표현 가운데 응답자 13명의 설문 결과로 만든 자료이다. 강도 5로 가장 강력한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은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로 설문 응답자 13명 중 총 10명이 가장 강도 높은 반대 의사표현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까지 하면서 ~를 시켜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엔 동의 못 합니다’, ‘그렇지 않을걸요’의 순으로 등급 매겨졌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에 대해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점을 느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의사의 정도에 따라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지도하면 토론 말하기 능력 제고에 좋은 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표5>27)

5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10) 그건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10) 그것이 아니면 그건 뭐니까? (7)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입니다. (7)
4	~까지 하면서 ~를 시켜야겠습니까? (7)
3	~들이 (환경)이 나빠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그 말씀엔 동의를 못합니다. (9)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8) 그렇지 않습니다. (7)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니까? (7)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7) 그 일을 했겠습니까? (7)
2	
1	그렇지 않을걸요. (9)

4. 나가기

본문은 말하기능력 제고를 위해 토론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에 주목하고 한국어 학습자가 토론에서 주로 나타나는 담화표지를 이용하여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한국어 토론의 실제자료와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토론문형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토론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담화표지와 표현문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회자 발화는 비교적 전형성이 강해 문장 단위의 담화표지가 많았다. 그에 비해 토론자 발화는 사회자 발화에 비해 발화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문장의 종결어미는 토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문형으로 44개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토론화행의 표현문형에도 요청과 제안 등 여러 가지 표현문형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7) 13명 설문조사 결과, 동일한 표현에 7명 이상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만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학습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토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이용한 연습과, 문장 연결어와 표현문형을 연계한 말하기연습, 그리고 다양한 토론 주제와 관련된 말하기 연습이다. 문장 연결어와 표현문형을 연계한 말하기 연습방안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해야 하는 토론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논리적인 발화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 비교적 긴 발화가 사용되는 토론상황에서 발화의 논리적인 응집성을 돕는 접속장치의 하나인 연결어를 잘 사용할 경우 청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3장에서 제시한 표현문형과 연결어를 함께 연습하는 방안은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주제와 관련된 말하기 연습을 위해 주제별 토론 어휘목록도 일부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토론 담화표지 연구를 이론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이론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며 추출한 토론 표현 문형들도 좀 더 세분화된 유형분류 기준을 세워 확실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발화자 개인적인 발화습관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비록 이곳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변인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토론현장에서 ‘체면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가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문은 특별히 중국어 화자들의 토론학습 경험이 한국어 토론 학습에 긍정적 전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토론문화와 한국의 토론문화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토론문화에 대한 연구와 중국어 토론 화행에 대한 형태적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지만 여건상 한국어 관련 부분 연구에만 머물게 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 연구에서 이러한 대조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라 유의미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연결어와 표현문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학습자들에게 연결어와 표현문형을 쌍으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석진 외, 『학습전략에 따른 소집단 토론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 비교』, 『한국과학 교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2001.
- 강승혜, 『한국어 고급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기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구 말)』 Vol.30, 2005a.
- 강승혜 외, 『한국어 평가론』, 태학사, 2006b.
- 강현화,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 - 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34호. 2007, 1~26쪽.
- 구자은, “화용론과 담화”, UUP. 2005.
- 구지민, ‘한문 목적 한국어를 위한 강의 담화표지 학습 연구’, “한국어 교육”, 2005, 23~43쪽.
- 구현정,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Vol.25, 26, No.0. 2001.
- 권순희,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 교육』, 역락, 2005.
- 김정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비언어적 표현 교육』, 『Foreign Language Education』. Vol. 13. No 2, 2006.
- 김순녀, 『중국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6.
- 김중섭, 『한국어 말하기』, 유씨엘, 2006, 168쪽.
- 김충실, 『중급 한국어 회화 교재의 현황과 보완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Ⅱ』, 태학사,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2001, 110~120쪽.
- 묘춘매, 『저학년 회화 교육에서의 교제법 사용』,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Ⅱ』, 태학사,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2001, 89~98쪽.
- 문금현, 『대학에서의 화법 강의안』, 『한국화법학회지』, 한국화법학회, 2000, 117~144쪽.
- 민병근, 『TV토론 담화의 논증 분석-화용·대화론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텍스트 언어학』 11 2001, 73~109쪽.
- 박영순,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2007, 142~143쪽.
- 박용익, 『학생들의 말하기 교육을 위한 대화분석의 활용방안』, 『텍스트언어학』 12, 2003, 237~260쪽.
- 박용한, 『토론 대화 전략 연구』, 역락, 2003, 32~34쪽.
-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2006.
- 송경숙, 『영어와 한국어 대화에서 성의 역할: 토론과 논쟁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

- 『사회언어학』, 1996b, 113~142쪽.
- 안경화, 『구어 텍스트의 응결장치연구 토론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3권 1호, 2001.
- 이동은, 『토론의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이동은, 『학구적 목적의 한국어 토론 수업 방안』, 『한국어교육』, 239~260쪽, 2003.
- 이미혜, 『고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토론수업 방안』, 『이중언어학』 제30호, 2006, 305~334쪽.
- 이민선, 『기능에 기반을 둔 문법 항목 교수 방안 연구-초급 단계의 종결표현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2004, 147~180쪽.
- 이원표, 『토크쇼에서의 말 끼어들기: 담화 기능과 사회적 요인』, 『담화와 인지』 제6권 2호, 1999.
- 이원표,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2001(2002년 판).
- 이주행 외, 『화법 교육의 이해』, 박이정, 2004, 320~347쪽.
- 이희자·이종희, 『어미·조사 학습자용 사전』, 한국문화사, 2006.
- 전영옥,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2002.
- 전영옥·구현정, 『토론에 나타난 대응쌍 연구』, 『담화와 인지』 제10권 3호, 2003, 249~273쪽.
- 전은주, 『말하기·듣기 영역 수행 평가의 방법 토론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27집, 1999, 39~65쪽.
- 조현용,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2003.
- 진제희, 『사회언어학적 및 전략적 말하기 능력 배양을 위한 담화분석 방법의 적용』,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최복자,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한재영 외, 『한국어교수법』, 태학사, 2005.
- 현윤호, 『한국어교육론3』, 한국문화사, 2005.
- Guy Cook 김지홍 뒤침, 『Discourse 담화론』, 범문사, 2003.
- H. Douglas Brown, 권오량 외 공역, 『원리에 의한 교수』, Longman, 2001(2006년 판).
- J. L. Auston, 김영진 옮김, 『How to do Things with Words 말과 행위』, 서광사, 1992(2003년 판).
- Jan Renkema, 이원표 옮김,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1997(2002년 판), 149쪽.
- Martin Bygate, 김지홍 뒤침, 『Speaking 말하기』, 범문사, 2003.

- Nancy Bonvillain, 한국사회언어학회 엮음,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2002.
- Drew, P. & Hritage, J.(eds), *Take at Work: interaction in institutional set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Jordan, R. R.,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Rebecca Hughes, *Teaching and researching Speaking*. Longman, 2002.
- 杜振宇, 「討論課在語文教學中的作用」, 『文字教法』, 2008.
- 林樂芬, 「課堂討論與學生學習主動性的發揮」, 『高等農業教育』, 第3期, 2000.
- 崔永華·楊寄洲, 『漢語課堂教學技巧』, 北京: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2.

<한국어 교재>

- 김중섭, 『한국어말하기 -외국인학부 유학생을 위한』, 유씨엘아엔씨, 2006.
- 김성희 외, 『서강한국어』 5A, 5B,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7.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고급(I,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3.

<100분토론 자료>

- ① 독도이야기 (2000.10.6)
- ②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돼야 하나? (2000.11.16)
- ③ 사형제도 폐지 필요한가? (2004.7.22)
- ④ 저 출산 무엇 때문인가? (2007.10.20)

❖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speaking method to improve
discussion ability of Chinese KFL learners.
-Using dicourse markers for discussion

Park, Aiya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look for speech education plans to improve discussion ability of learners in Chines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Paying attention to the existing research that discussion learning could be effective to raise learners' speech ability, the study examined discussion sentence patterns included in real data for discussion and Korean language textbooks to look for learning methods helping learners express their opinions clearly with confidence with discourse markers applied mainly to discussion. As the results, the study could look for discourse markers and expression sentence patterns applied mainly to only discussion. The utterance of moderators had a lot of discourse markers with sentence units since it had relatively strong stereotype. On the contrary, the utterance of debaters had relatively more liberal utterance than the utterance of moderators. The study could extract 44 ending words as an expression sentence type applied mainly to discussion and analyzed that various expression sentence patterns as request and proposal were applied to the speech act of discussion.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e study proposed some educational plans to improve learners' discussion abilit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researches as the study will give a help in improving Korean language learners' speech ability.

Key Words

Discussion, speech ability, discussion sentence pattern, discourse marker,
expression sentence pattern

논문접수일: 2008. 4. 30.

심사완료일: 2008. 5. 28.

게재확정일: 2008. 6. 13.

첨부1 - <표1>

진행하기	사회자 담화표지	
시작하기	~을 모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를 짝어봅니다.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신가 궁금합니다. ~해야 되는가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라고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계서도 거기엔 동의하시는지요?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요? ~계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하자 그런 말씀인가요? ~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자~ 어떠십니까? ~다는 논리를 제시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라고 판단(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될 걸로 봐야 하겠습니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됩니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에 대해서 다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게요. +(질문) 끝으로 이렇게 여쭙보고 싶네요.+(질문)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질문)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질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질문)
제안하기	~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요?	방청석의 의견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요?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기	~님 말씀하시죠. ~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께서 반박(반론)을 하시죠.	~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를 좀 밝혀주시죠. 간략히 좀 답변 해주시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p>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여기서는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대안을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께서 잠깐 짧게 보충말씀 ~ ~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p>	<p>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반대 ~ 이 대안에 대해서는~ 패널 분 입장에서 혹시 반론 있으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한 분씩~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 ~ 좀 가라앉히시고~</p>
정리하기	<p>~문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논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 수 있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것이라는 주장도 줄곧 제기돼왔습니다. ~하는 한 끊이지 않을 논란이기도 합니다. ~들의 관심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는 바람에 더욱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실을 놓고 해석이 다른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따져볼 수 있는</p>	<p>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따 다 따져보기로 하구요. 제가 마무리 겸 두 분께만 여쭙본 걸로 하고요. 찬반양론이 크게 엇갈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안으로서 ~을 제안을 해주셨구요.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요. ~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는 주장이신대요. ~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잠깐요)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잘 느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p>
마무리하기	<p>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아무래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고요.</p>	<p>오늘~토론 이 정도에서 논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p>

첨부2 - <표2>

토론하기		토론자 담화 표지	
주 장 하 기	추측, 확인, 강조	~ㄴ, 은/는 /을/를 겁니다. ~ㄴ+(부정)+는 겁니다. ~이/가 (부정) 겁니다. ~은/는 ~라는 겁니다. ~수가 없는(있는) 겁니다. ~해야 되겠다는 ~의 의지입니다. ~게 되는 겁니다.	~/을를 하(자)는 겁니다. V,A-(으)ㄴ 것입니다. ~해야/야 (만) 됩니다. ~보자/느냐 이겁니다. ~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을 (부정)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술	~가게 됩니다. ~정도(가량) 됩니다.	~면 됩니다. ~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자고 하는 주원인입니 다.
	추측 비교	~는/ㄴ/ㄹ 것 같습니다. ~거 하고 같습니다.	~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까 싶습니다.
의견		~을 줄여야 합니다. ~을 주장합니다. ~이 필요합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지 /가/로 (있다/없다) 봅니 다. ~이 있으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저 는 낙관합니다.
	~자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제 (기 본적인) 시각/생각입니다.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입 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주 문제 가 있는 시각/생각입니다. ~에 대한 ~입니다.	
질 문 하 기	딱 한가지만 ~께 여쭙게요.		
	N ~어 봤어요?		
확인	~할 걸로 예상들 하고 계시죠? 지금 ~에 ~가 없다는 거 아시죠? ~다고 계획하셨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었습니까?	~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반문 (반대)		~무슨 ~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게 ~을 ~했겠습니까? ~를 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면 그건 뭘니까? 이거 ~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거기서 어떤 생물이 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와 같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까지 ~하면서 ~를 시켜야겠습니까? ~들이 환경이 나빠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관리할 수 있으면서 ~는 관리하지 못합니까?
반대하기	강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저는 반대입니다. 폐지하자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도표입니다.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그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것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는 논리는 그건 좀 비약입니다. ~에 대해서는 ~제도를 반대합니다. 저는 ~사업을 반대합니다. 그 말씀엔 동의를 못합니다. 그런 입장은 너무 순진합니다. ~도/면/이/에/는/은 안됩니다.
	부정	~은/는/가/이/게/도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는 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그런 적 없죠.
동의하기	긍정, 인정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건 저 또한 인정합니다.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확인, 동의 표시	있다고 봐야죠. 당연하죠. 아주 형편없죠.	결국 ~하는 경우가 많죠.
설명하	진술	~말씀(을/를) 드리겠습니다. ~을 (대폭) ~ 했습니다.	V+어/여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재가)를 얻어 (사

기		인)을 합니다. 그런 원칙을 다 ~했습니다.	~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정 적 강 조	~가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를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 니다. ~를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들 기	~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 니다.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 이런 ~를 다 막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 지지를 하고 있습 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	정하고 있습니다. ~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 들어있습니다. ~대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 습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 어요. ~문제가/생성이 됐습니다. ~들의 증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 어요.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용	~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없어 졌다고 했습니다. ~이 찬성을 했습니다.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게 없도록 하자 이렇게 (결 의를) 했어요.
	강조	저희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는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변화)란 말씀입니다.	~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 니다. ~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로 갈 가능성이 큼니다.
	이유	~으로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기 때문에 추진 돼 왔던 (사업) 입니다.
	요 청 하 기	요청 이거 보십시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이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대 답 하 기	알림 제가 대답을 할게요.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실증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부 연 하 기	주장, 질문, 설명, 반대, 제안, 설명, 후행 발화 예시	~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확신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했고요. ~원인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조금 이의가 있고요. 동시에 사용할 순 없고요.	~에 따라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그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도 굉장히 나빠졌구요.
	반박, 이의 제기, 후행 발화 예시	~시면 알기가 쉬운데요. ~님 말씀에 저는 좀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에게 묻고 싶은데요. ~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서 ~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유 설명, 후행 발화 예시	~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 거든요. ~이 취소가 됐거든요. ~을 못하는 ~이 많거든요. 이거 과잉 (형벌)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거든요. ~이 제일 걱정하고 반대하거든요.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거든요.

첨부3 - 설문지

※ 다음은 반대의사 표현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인의 느낌에 따라 1에서 5까지 표기해 주세요. 아래 표현의 강도를 강하면 5 약하면 1.

- | | |
|---------------------|-------------------|
| 그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 1---2---3---4---5 |
|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1---2---3---4---5 |
| 거기서 어떤 (생물)이 살겠습니까? | 1---2---3---4---5 |
|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 1---2---3---4---5 |
| 그 일을 했겠습니까? | 1---2---3---4---5 |

무슨 ~가 있습니까?	1---2---3---4---5
그렇지 않습니다.	1---2---3---4---5
그런 적 없죠.	1---2---3---4---5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1---2---3---4---5
저는 반대입니다.	1---2---3---4---5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1---2---3---4---5
~들이 (환경이 나빠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3---4---5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니까?	1---2---3---4---5
그것은 아닙니다.	1---2---3---4---5
그 말씀엔 동의를 못합니다.	1---2---3---4---5
그런 입장은 너무 (순진)합니다.	1---2---3---4---5
그것은 안 됩니다.	1---2---3---4---5
~까지 하면서 ~를 시켜야겠습니까?	1---2---3---4---5
이걸 어떻게 이거와 같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1---2---3---4---5
이거 ~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1---2---3---4---5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1---2---3---4---5
천만의 말씀입니다.	1---2---3---4---5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3---4---5
그것이 아니면 그건 뭘니까?	1---2---3---4---5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1---2---3---4---5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2---3---4---5
그건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1---2---3---4---5
~는 관리할 수 있으면서 ~는 관리하지 못하니까?	1---2---3---4---5

첨부4 - 토론 주제별 단어 및 표현 정리

토론 주제별 단어 및 표현 정리(예: 저 출산과 사회문제)		
10개월 된 딸	고용증대	다복 왔다자녀) 선발대회 수상
1인 가구	공단	다양한 부작용
20대	공동체	당연한 권리
30살	교육과 보호	대체출산율
40대	교육문제	대출
7살 난 아들	교육비 지원	대학교육
WHO, 세계보건기구	국가경쟁력이 약화됨	대학병원 간호사
가부장적인집안	국가별 평등지수	대한의사협회
가사노동	국가의 수치	도우미 제도
가임 연령	국가인구	도우미를 양성
가임기간	국가적인 문화	뒷받침
가정 친화적 경험	권고사항	딸 아들 잘 기르자
가정문제	권리 박탈	마인드 변화
가정을 꾸려가다	금전적 지원	만혼
가정주부	급격히	맞벌이
가족 친화경영	급여	맞벌이 부부
가족계획	긍정적인 효과	면접
간호휴직제	기업 부담	모성 관련 제도
개복(수술)	기업 처벌 규정	모성보호제도 개편
결혼 2년차	기업구조	모유를 짜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	기업의 이미지	목적이 달성 되다
결혼과 일에 대한 가치관	기형의 위험	못 미치는 수준
경쟁 상대	낙관적	무급
경제 구조	난자	무상
경제 노후화	남성 직원들하고의 경쟁	문제의식
경제 차이	남의 입장	미혼
경제력	노년	미혼남녀
경제문제	노동력 침체	미혼모의 아이
경제성장률 둔화	노동부	민간보육시설
경제적	노동시장	민족인구
경제활동	노동현장의 현실	민족패권주의
고령 사회	노령화 사회	방과 후 학교
고아수출	노사문제	방어진료
고용 회피 요인	노인인구 부양	배부른 기간
고용보험	눈치 보다	변비
고용주	다른 대책	보건복지부

보육교육비 지원	선진국 평균	여성 관리직 비율
보육시설	성장잠재력	여성 직장인
보육시설 설치 문제	세계 최저 수준	여성가족부
보조금	세대간 갈등	여성고용비율
복지부	세부사업	여성과 남성의 문제
본능적	소득고용의 불안정	여성권한
본소 내근	소속감	여성들의 반응
부양	슈퍼우먼	여성들의 일과 출산 육아문제
분비물	습관성 유산	여성운동가
불륜 내연 관계	승진	여성의 짐
불안정 고용	승진율	여성의 힘
불임 증가	시기상조	여성정책
불임혜택	시립병원	여성취업
불평등	시민단체	역할 분담
비관적	시민행동	연령
비난	시범사업	연차
비정규직 여성	시어머니	염증(수술 후유증)
빠른 속도로 증가	신생아의 수	영향
사교육비 문제	실질적인 대안	예산
사실혼	심각한 국면	예산
사업주	아동수당	외국 어린이
사직	아버지 육아휴직제	외국 인력을 수입
사회비용	안정된 직업	외국인 노동자 유입
사회의 문화	안정적 일자리인	우수사례 홍보
사회의료 차원	애를 낳다	우수한 인력
사회적 인식	야만인	우울증
사회적 제약	양극화의 시발점	운영비 지원
사회제도	양립부분	원인이 다양하다
사후관리	양부모	월경불순
산모	양성 평등	월경통
산부인과 의사	양성평등에 대한 환경조성	위기
산전휴가	양육 지원	위기상황
산후조리원	양자선택	위장병
삼산가족	어린이집 운영	유교 문화
상관관계	엄마	유명무실한 제도
상사	여론조사	유산
상황	여사원이	육아문제
생산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육아수당
생활안정	여성 고용	육아의 부담

육아지원	장애아 가족	청년실업률
육아휴업 능력	재 채용	체감온도
육아휴직 급여	재취업한 경우	체감효과
육아휴직 할당제도	재혼 가족	총인구의 감소
의료보험비	저 출산	최소한의 선택
의료보험의 전국민화	저 출산의 원인	최저수준
의무규정	저소득층 중심	축하
의무조항	전문가들의 분석	출산 계획
의학적 환경	전문(醫)	출산 기피 현상
이민	전업주부	출산 간호
이민자 가족	전체 인구	출산 시점
이민정책	젊은 할머니	출산율
이분법	정보 업무	출산 문제
이산가족	정부 대책	출산장려정책
인건비 상승요인	정부 정책	출산 지원금
인과응보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출산 파업
인구 균형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지원	출산휴가
인구 폭발	정부의 책임	출산휴가 제도
인구감소	정상가정	출산휴가비
인구감소걱정	정시 출퇴근	취직
인력 대체	정자	친정어머니
인식의 변화	젓먹이	캠페인
인프라 부족	제도보완	태어난 아기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적 보장	터울
일자리에 대한 안정	제왕절개수술	통계청
일할 사람이 줄어들다.	조사결과	퇴직
임대아파트	조사전문기간	특수한 상황
임신 10개월	존중	파파쿼터제
임신 기회	좌절감	평균적
임신기간 동안	주택	평등
임신한 여직원	중산층 확대	피부로 느끼다
입직 연령	중소기업에 근무	필요한 인력
자각하는 분위기	지방 근무	한 부모 가족
자궁 수축	지방자치단체	한국 사회
자기 종족 보존	지원	할당
자기 직장과 일자리	직장 여성	행복한 출산
자녀 연령	직장보육시설	혼인여부
자연분만비	차별 조항	휴직대상
장려금	첫 아기, 둘째	희망적
		희망한국